

# 부모의 주 5일 근무 여부에 따른 가족여가활동 유형이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 The Influence of Parents' Five Day Work Weeks and Family Leisure on Adolescents' Perceived Family Strengths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석사 김민정\*  
교수 장윤옥\*\*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

Master : Kim, Min-Jung

Professor : Jang, Yoon-Ok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s of factors such as type and degree of family leisure among parents with five day work weeks on adolescents' perceived family strengths. Its findings are based on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525 male and female parents of middle school students. Factor analysis and MANOVA were employed for data analysis and Scheffé tests for post-hoc analysi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whose parents work five days a week were at a higher level than other adolescents in terms of finances, family ties, communication, and social ties.

Seco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concerning adolescents' family strength by type of family leisure.

Third, adolescents with more family leisure activities scored higher than others in the areas of manageable strengths, financial levels, family ties, communication, and family social ties.

Fourth, among families following the five day working system, adolescents who had more family leisure activities scored higher than the others in regards to manageable strengths, financial levels, family ties, communication, and family social ties. Additionally, where adolescents thought they had fewer family leisure activities, family-oriented adolescents tended to be engaged in higher physical-activity-oriented and hobby-oriented activities in relation to manageable strengths, financial level, family ties, and communication and hobby-oriented adolescents engaged in higher than average amounts of physical-activity, strengthening family social ties in the process. Fifth, concerning families not adhering to the five day working system, adolescents who had more family leisure activities scored higher than others in terms of manageable strengths, financial levels, family ties, communication, and family social ties. As the above results indicate, family leisure activities appear to be a key factor influencing family strength. Therefore, further support should be extended toward developing new forms of family leisure and additional studies should be devoted to the subject.

---

▲주요어(Key Words) : 주 5일 근무제(5-days working system), 가족여가(family leisure),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s)

---

\* 주 저 자 : 김민정 (E-mail : minjung248@hanmail.net)

\*\* 교신저자 : 장윤옥 (E-mail : yojang@mail.knu.ac.kr)

## I. 서 론

현대사회의 고도의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은 의식주 충족을 위한 생산력을 크게 증대시켜 왔으며 이로 인해 개별 가계는 경제적 여유 속에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최근의 웰빙 열풍은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의 욕구를 반영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개인적·가족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노력한다. 여가활동은 과거에는 노동을 위한 휴식의 시간과 활동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높았지만, 오늘날에는 복잡한 일상에서 오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여가에 대한 가치와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현대인의 노동의식과 직업관도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일보다는 여가를 선호하고, 가족과 건강을 우선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1). 여가에 대한 가치와 개념의 변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대인의 노력은 여가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한 시간적 요구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요구와 노동시간 축소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고용 창출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근무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주 5일 근무제를 2004년부터 확대·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학교도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가족간 유대 증진 및 사회 체험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함양과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주 5일 수업제를 도입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미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해 오고 있는 외국에서는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주 5일제 수업으로 청소년의 여가시간도 증가하고 있다(김정운·최석호·이장주, 2004).

우리나라에서도 주 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의 주부들은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하고 있으며(윤소영, 2002) 반면에,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직장인들은 여전히 집에서 휴식 및 TV시청을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으로 미디어활동을 많이 한다(김현주·이창현·박소라, 2002)고 보고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부모들의 사회·문화·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의 가족여가활동은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과 사회화 과정을 돕고, 집단 내 협동심과 공동체감을 증대시키며, 심리적 안정감과 인간관계를 개선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한상철, 1998).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가족여가활동은 일상적인 학업에서 쌓이는 긴장과 권태를 해소할 수 있고, 정서를 순화시키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주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 보다 나은 내일을 창조할 수 있게 한다(이은희·민현선, 2004). 이러한 사실들과 청소년의 가족여가활동이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의 가족여가활동은 청소년 발달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한 연구(여성가족부, 2003)에서는 응답자의 70%가 주 5일 근무제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평등한 부부 관계를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 답변을 하고 있으나 응답자의 30%는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하고 남편들은 가족여가 시간이 늘어나 피곤해질 것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음을 볼 때, 늘어난 여가시간 자체가 모든 가족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주 5일 수업제 실시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도 있다. 우선 부모가 주 5일 근무제의 범위에서 벗어난 자영업자나 영세업체 종사자의 경우 주 5일 수업제 실시로 인해 자녀가 토요일에 하루 종일 방치되거나, 청소년에 대한 여가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시간이 늘어나면서 일탈현상이 증가할 수도 있는 위험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어 잠재되어 있던 가족갈등이 표면화되어 이혼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 부모의 주 5일 근무제와 자녀의 주 5일 수업제의 시행이 가족구성원이나 전체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의 질 또는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여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가족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써 건강한 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원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가정 스스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가족건강성을 높임으로써 가족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결·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에는 가족이 함께 여가를 계획하고 즐기는 가운데 가족구성원간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활성화 시켜주는 가족여가활동이 제시되고 있다(문숙재·윤소영·차경옥·천혜정, 2005).

가족은 여가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가족간의 일체감을 높이고 가족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족이 함께 여가를 계획하고 즐기는 가운데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증진되므로 가족의 안정성 및 결속력이 증가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이 증가된다(홍성화, 2003). 그 뿐만 아니라 가족여가활동은 가족구성원간의 친밀감을 향상시키며, 생활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김명조, 1990)고 한다. 이처럼 가족여가활동은 가족의 심리적 만족, 가족의 안정성 및 결속력을 증가시켜주므로(Orthner & Mancini, 1990) 가족여가활동을 통해 가족건강성 또한 증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가족여가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가족여가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김미정, 2006; 양영아, 1997; 이민아,

2006; 최길례, 2003; 최소영, 2004)가 대부분이고, 가족여가활동의 유형과 정도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더구나 가족여가활동과 가족건강성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도 가족건강성의 다양한 차원을 세분화시켜 가족여가활동이 가족건강성 각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가족여가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가족건강성이 서로 다름을 제시하는 또 다른 선행연구들(모창배, 1993; 송강영, 1999; 하현국, 1995)도 청소년이 아닌 주부들을 연구대상으로 하거나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각 하위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보다는 전반적인 여가만족도나 삶의 질 향상 등에 초점에 맞춘 연구들 뿐이다. 또한 부모의 주 5일 근무제와 자녀의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가족여가시간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청소년의 가족여가활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부모의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활동 실태를 조사한 연구(곽태홍, 2003; 양성인, 2002; 이수현, 2002; 이영훈, 2002; 최윤희, 2003)이거나,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조사한 연구(안인준, 2002; 이만형, 2002; 최숙경, 2005)와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대한 요구분석 연구(박영춘, 2005; 이승호, 2005)가 대부분이다.

한편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은 가족여가활동 유형(김미정, 2006; 양영아, 1997; 이민아, 2006; 최길례, 2003; 최소영, 2004)과 가족여가활동 정도(모창배, 1993; 송강영, 1999; 하현국, 1995)에 따라 가족건강성의 각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름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여가활동 중에서도 교육체험지향 및 취미지향 가족여가활동 유형은 가족응집성과 의사소통을 활성화시켜 가족건강성을 높이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이민아, 2006). 또 교육체험지향 가족여가활동 유형은 취미지향, 사회친목지향, 가정지향 가족여가활동 유형보다 상호작용성, 정서안정성, 관리능률성을 더 증진시켜준다(이태진, 2001)고 하며, 가족의 스포츠지향성, 문화지향성 및 여행지향성이 높을수록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이 더 높다(하현국, 1995)고 한다.

이외에도 가족여가활동 유형은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역동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가정지향 유형의 가족여가활동에 참여할 때 부모·자녀 상호간의 상호간 친밀도와 자율적인 관계를 향상시키는 가족분화 수준이 높아지며, 가정지향 및 신체지향 유형의 가족여가활동에 참여할 때 부모자녀간 관계의 질이 향상된다(최길례, 2003)고 보고하면서 가족여가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가족여가활동이 활발할수록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며 정서적인 유대가 강하고(최소영, 2004), 여가활동에 참여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모창배, 1993)고 한다.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 주부들보다

가족구성원과의 감정, 태도, 믿음 및 생각이 더 잘 일치하여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며, 가족스트레스가 더 적고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더 우호적이라고(송강영, 1999)한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 중에서는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가족건강성 각 하위변인에 미치는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여가활동은 교육적 기능이 강하다는 점에서 가족여가활동의 중요성이 역설되고 있으며(김외숙, 1991), 가족이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을 때 청소년들의 비행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고 부모와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공유하기를 권장하고 있다(Robertson, 1999). 또한 주 5일 근무제와 주 5일 수업제로 인해 늘어난 여가시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고자 한다는 선행연구결과들(김현주 등, 2002; 삼성경제연구소, 2001; 윤소영, 2002)을 볼 때, 부모의 주 5일 근무제와 자녀의 주 5일 수업제가 확장·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여가활동이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 5일 근무를 실시여부에 따라 어떤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가족여가활동 정도가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키는가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은 질문지 조사 단계에서 가족여가활동 유형을 먼저 규명하고 각 유형에 속하는 가족여가활동들을 미리 구조화하여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정도를 알아본 연구들(김미정, 2006; 최소영, 2004)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각 개별가정이 처한 여러가지 환경에 따라 가족여가활동 특성에 대한 인식과 가족여가활동 유형 및 정도가 다를 수 있고 가족여가활동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미리 구조화된 유형을 제시하고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응답을 기초로 가족여가활동 영역과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식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여가활동을 제시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들의 응답에 기초하여 가족여가활동영역을 분류한 후, 분류된 영역 중 한 개인이 가장 많이 하는 가족여가활동 영역을 그 개인의 가족여가활동유형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분류·구성된 가족여가활동의 유형과 가족여가활동의 정도가 가족건강성의 각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와 동시에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가족여가활동 정도의 두 변인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이들 두 변인의 상호작용에 따라 가족의 건강성에 미치는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봄으로써 가족건강성 증진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여가활동 유형을 분류한 후 부모의

주 5일 근무제 실시 여부에 따라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가족여가활동 정도의 상호작용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주 5일 근무 여부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부모의 주 5일 근무 여부, 가족여가활동 유형 및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1-1]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1-2]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 1. 주 5일 근무제와 가족건강성

주 5일 근무제란 주당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줄여 연간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임으로써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손나래, 2005).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어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 전과 후에 직장인의 여가활동 참여 정도의 차이를 조사한 양성인(2002)은 주 5일 근무제의 실시 이후 모든 여가활동 분야에서 참여 정도가 증가하고 여가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이수현(2002)은 남편의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해 전업 주부들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과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데, 가족과 함께 지내기, 미디어 활동, 레저 활동, 여행, 문화활동, 스포츠 활동 등 대부분의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취업주부의 경우도 주말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소득이 많을수록, 가족

과 함께 지내는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여가만족도가 크다고 한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휴일 여가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삼성경제연구소, 2001)에서 응답자의 47.4%가 '가족과 함께'한다고 답하고 있으며, 드라이브/여행(22.2%), 자기개발(14.9%), 집에서 휴식(6.6%) 등의 순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는 가족여가활동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 5일 근무제의 실시 집단과 비실시 집단의 주말의 여가활동을 비교한 김현주 등(2002)은 주 5일 근무제의 실시 집단은 가족과 함께 지내기(41.6%), 집에서 휴식 및 TV 시청(32.3%), 스포츠 활동(21.0%)과 여행(21.0%), 레저 활동(19.0%), 미디어 활동(18.6%) 등의 순으로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 비실시 집단에서는 집에서 휴식 및 TV 시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미디어 활동, 가족과 함께 지내기 순으로 여가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이 비실시 집단에 비해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주 5일 근무제를 통한 가족여가시간의 증가는 가족과 즐기는 시간, 레저 활동, 사회적 참여, 교육 기회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원 각자의 취향과 개성, 적성에 맞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육아나 가사노동 부담이 큰 여성근로자들이 이중 부담으로 겪는 스트레스를 다소나마 해소해 줄 수 있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문숙재 등, 2005)고 한다.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가족 및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한 윤소영(2002)은 대다수의 주부들은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후 가족여가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관계가 향상될 것이라고 예측하며(86.4%),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 이전보다 부부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75.7%)고 보고하고 있다. 또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전보다 실시 이후 주말 여가활동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영역은 여행, 스포츠, 레저, 미디어 활동, 문화활동, 가족과 함께 보내는 활동이었으며, 주 5일 근무제 실시 후 보낸 주말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81.8%)고 한다. 또한 변영수(2007)도 주 5일 근무제 이후 가족관계가 향상되었으며(69.2%), 부부관계도 좋아졌다(55.6%)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하고 남편들은 가족여가 시간이 늘어나 피곤해질 수도 있으며, 부모가 주 5일 근무제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자녀가 토요일에 하루 종일 방치될 수 있고, 청소년에 대한 여가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시간이 늘어나면서 일탈 현상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어 잠재되어 있던 가족갈등이 표면화되어 이혼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처럼 부모의 주 5일 근무제와 자녀의 주 5일 수업제의 시행이 가족구성원이나 전체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김정운 · 이누미야, 2003), 특히 가족 단위 여가활동 중 취미 · 교양활동과 사교활동, 관광 · 행사 활동은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시켜 가족의 결속력을 증진시키고 취미 · 교양활동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한다(홍성화, 2003). 특히 사회지향적인 가족여가활동에의 참여는 가족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바람직한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임변장 · 정영린, 1995)고 하겠다.

이들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볼 때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의 증진은 가족구성원 개개인과 가족 전체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가족건강성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해 증가된 가족여가활동은 일상생활 중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심리적 · 정서적 복리를 증진시킴으로써 결국 가족건강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가족여가활동과 가족건강성

가족여가(Family leisure)는 부모와 자녀가 자유시간 또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지영숙 · 이태진(2001)은 여가에 참여하는 가족원을 확대가족이나 핵가족에 상관없이 자녀교육기에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사람이나 부모 모두와 자녀 중 한사람이나 자녀 모두가 함께하는 활동으로 가족 중 2인 이상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족여가활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김미정, 2006; 김영숙, 2002; 김현혜, 2002; 송강영, 1999; 이민아, 2006; 이태진, 2001; 지영숙 · 이태진, 2001; 최길례, 2003)은 가족여가활동이 가족의 만족감, 가족의 상호작용, 그리고 가족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이 부부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청소년인 경우는 드물고, 특히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행되고 있는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여가만족도, 가족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등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가족건강성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중학생과 그 부모들의 가족여가활동과 가족건강성의 실태를 알아보고, 가족여가활동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이민아(2006)는 가족여가활동의 각 유형은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교육체험지향 가족여가활동은 가족응집성, 적응성,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사

회친목지향 가족여가활동은 가족응집성을 높이고 취미지향 가족여가활동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여가활동이 부모 ·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최길례(2003)는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과 신체적 가족여가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가족이 다른 유형의 가족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가족보다 부모 · 자녀 간의 정서적 역동성 및 가족관계가 향상된다고 한다.

김현혜(2002)는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제약 및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관광·행사여가 및 취미·교양여가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관광·감상여가활동, 사교여가, 놀이·오락여가 그리고 기타휴식여가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대학생들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의 경우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말한다.

김영숙(2002)은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사교적 여가활동 유형에 속하는 성인들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스포츠, 놀이오락, 관람감상, 관광행렬, 취미교양 여가활동 유형에 참여하는 순으로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고 이후원(1993)은 운동 및 스포츠 여가활동이나 취미교양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주부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고 오락활동이나 휴양적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주부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낮다고 한다.

가정주부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및 가족스트레스, 가족응집력의 관계를 분석한 송강영(1999)은 스포츠와 같은 능동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주부들이 음악감상과 같은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주부들보다 평소 가족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하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가족스트레스도 더 적고 가족응집력 및 심리적 안정감도 더 높다고 한다.

최소영(2004)도 자녀양육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가족여가참여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가정지향적활동과 교육체험지향활동을 많이 하는 가족일수록 가족간의 유대감을 더 증대시키며 가정생활의 질이 향상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태진(2001)은 자녀양육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가족여가활동 유형이 가족체계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친목지향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가족일수록 가족의 자아개발성 수준이 향상되며, 교육체험지향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정서안정성과 상호작용성, 관리능률성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취학전 아동을 둔 가족의 여가지향성이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하현국(1995)은 가족의 외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가족의 스포츠지향성, 문화지향성 및 여행지향성이 높을수록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들이 여가를 많이 즐길수록 가족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역으로 가족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가를 많이 즐겨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

다고 한다.

한편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여가만족도, 가족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여가활동 정도에 따른 의사소통 및 가족스트레스, 가족응집력의 관계를 분석한 송강영(1999)은 여가활동에 자주 참여하는 주부들이 자주 참여하지 않는 주부들에 비해 가족구성원과의 감정, 태도, 믿음 및 생각이 더 잘 일치하여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스트레스가 더 적고 또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더 우호적이라고 말한다.

Hill(1988)은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시간이 주당 1.7시간에서 4.9시간으로 증가할 경우 이혼의 가능성을 반으로 줄일 수 있음을 중단적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 가족이 여가시간을 함께 많이 보낼 수 있을 때 가족간의 이해가 높아지고, 결국 가정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Ragheb와 Griffith(1982)도 여가활동과 생활만족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성인 남녀의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하현국(1995)은 가족들이 여가를 많이 즐길수록 가족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하며, 최소영(2004)은 가족여가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간의 의사소통 정도가 활발하고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강하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여가활동은 그 유형에 따라 가족기능의 활성화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기능의 활성화와 건강한 가족관계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며, 가족여가활동의 참여 정도도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건강성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3.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가족여가활동과 가족건강성

주 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비실시 집단의 주말 여가문화 이용행태 변화를 비교한 김현주 등(2002)은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직장인의 경우 실시하지 않은 직장인에 비해 주말 여가시간을 가족과 함께 지내는 비율이 월등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서구 사회와 마찬가지로 여가행동이 가족단위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를 연구한 윤소영(2002)은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주부들의 제도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주 5일 근무제 실시 후 주말이 더 만족스러우며(81.8%), 여가활동의 변화내용을 개인적인 취미생활, 종교생활, 친구와의 교제시간 측면과 가족과의 여행, 공동여가활동 측면으

로 구분하여 볼 때 주부 개인여가활동은 실시 전후 차이가 없었으나 가족여가활동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주 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비실시 집단 간에는 가족여가활동의 유형과 정도에 차이가 있고 또 이에 따라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 실시 여부에 따른 가족여가활동의 유형과 정도의 상호작용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소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고등학생은 중학생들에 보다 학업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간제약으로 가족여가활동 참여에도 제약을 많이 받을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가족여가활동에의 참여 기회가 많은 중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학생들 중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다른 학년에 비해 부모님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가족여가활동에 참여하며 가정마다 가족여가활동의 참여도나 관심의 편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들 중 부모의 주 5일 근무 실시 가족의 경우 남학생이 113명(37.7%), 여학생이 187명(62.3%)이었고 부모의 주 5일 근무제 비실시 가족의 경우 남학생이 68명(30.2%), 여학생이 157명(69.8%)이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 가족의 아버지의 직업의 경우 일반 전문 기술직 종사자가 66명(22.0%)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 정부 및 공공기관 사무직이 64명(21.3%), 소규모 자영업 48명(16.0%)의 순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 151명(50.3%)가 가장 많았고, 판매 및 서비스직 33명(11.0%), 소규모 자영업 31명(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 비실시 가족의 아버지의 직업의 경우 기능직, 생산직 종사자가 51명(22.7%), 소규모 자영업 51명(22.7%)로 가장 많았고 일반 전문기술직 종사자가 37명(16.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 소규모 자영업 56명(24.9%)이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 46명(20.4%), 판매 및 서비스직 43명(19.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주 5일 근무 실시 가족의 경우 아버지는 고졸이 133명(44.3%), 대학교 졸업이 117명(39.0%), 대학원 이상이 31명(10.3%)로 나타났고, 어머니는 고졸이 161명(53.7%)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 99명(33.0%)으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 비실시 가족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 128명(56.9%), 대학교 졸업이 65명(28.9%)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경우 고졸이 142명(63.1%), 대학교 졸업이 44명(19.6%)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주 5일 근무제 실시 가족의 경우 250~300만원 미만이 84명(28.0%)으로 가장 많았고, 100~200만원 미만이 65명(21.6%), 300~400만원 미만이 65명(21.7%)으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 비실시 가족의 경우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78명(34.7%), 200~300만원 미만이 68명(30.2%)으로 나타났다.

2.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07년 4월 4일에 대구광역시 소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7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한 다음 본 조사는 2007년 4월 12일에서 17일에 걸쳐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5개 중학교 15학급의 3학년에 재학중인 700명의 남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급의 담당교사를 방문하여 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작성요령을 설명한 후 담당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700부의 질문지 중 회수된 질문지는 670부였으며, 이 중 부실기재된 질문지들과 부·모가 모두 무직이거나 홀부모인 가정의 학생 질문지들을 제외시키고 총 525부의 질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가족여가활동 척도

가족여가활동 척도는 선행연구들(국민여가조사, 2006; 김수연, 1998; 이기영 등, 1995; 이태진, 2002)을 참고하여 총 4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매주 하는 편이다'에 8점, '2주에 한번 정도'에 7점, '한달에 한번 정도'에 6점, '2달에 한번 정도'에 5점, '4개월에 한번 정도'에 4점, '6개월에 한번 정도'에 3점, '거의 하지 않는다'에 2점, '전혀 하지 않는다'에 1점을 주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범 주	주 5일	주 5일	전 체	변수	범 주	주 5일	주 5일	전 체	
		근무제 실시 가족 빈도(%)	근무제 비실시 가족 빈도(%)				근무제 실시 가족 빈도(%)	근무제 비실시 가족 빈도(%)		
성별	남학생	113( 37.7)	68( 30.2)	181( 34.5)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6( 5.3)	17( 7.6)	33( 6.3)	
	여학생	187( 62.3)	157( 69.8)	344( 65.5)		100~200만원미만	65( 21.6)	78( 34.7)	143( 27.2)	
가족 원수	3명 이하	24( 8.0)	26( 11.6)	50( 9.5)		200~300만원 미만	84( 28.0)	68( 30.2)	152( 29.0)	
	4명	201( 67.0)	132( 58.7)	333( 63.4)		300~400만원 미만	65( 21.7)	27( 12.0)	92( 17.5)	
	5명	54( 18.0)	53( 23.6)	107( 20.4)		400만원 이상	70( 23.3)	35( 15.6)	105( 20.0)	
	6명 이상	21( 7.0)	14( 6.2)	35( 6.7)		생활 수준	상	24( 8.0)	11( 4.9)	35( 6.7)
동거 가족	부 모	13( 7.6)	20( 8.9)	33( 6.3)			중상	96( 32.0)	50( 22.2)	146( 27.8)
	부모+형제자매	235( 78.4)	174( 77.3)	409( 77.9)			중	144( 48.0)	118( 52.4)	262( 49.9)
	조부모+부모+형제자매	23( 7.7)	21( 9.3)	44( 8.4)			중하	33( 11.0)	38( 16.9)	71( 13.5)
	기 타	19( 6.3)	10( 4.5)	39( 7.4)		하	3( 1.0)	8( 3.6)	11( 2.1)	
부 학력	중학교 이하	19( 6.4)	23( 10.2)	42( 8.0)	모 학력	중학교 이하	26( 8.6)	33( 14.7)	59( 11.2)	
	고등학교	133( 44.3)	128( 56.9)	261( 49.7)		고등학교	161( 53.7)	142( 63.1)	303( 57.7)	
	대학교	117( 39.0)	65( 28.9)	182( 34.7)		대학교	99( 33.0)	44( 19.6)	143( 27.2)	
	대학원 이상	31( 10.3)	9( 4.0)	40( 7.6)		대학원 이상	14( 4.7)	6( 2.7)	20( 3.9)	
부 직업	무 직	8( 2.7)	8( 3.6)	16( 3.0)	모 직업	전업주부	151( 50.3)	46( 20.4)	197( 37.5)	
	임시·단순노무직	10( 3.3)	15( 6.7)	25( 4.8)		임시·단순노무직	6( 2.0)	21( 9.3)	27( 5.1)	
	판매/서비스직	25( 8.3)	27( 12.0)	52( 9.9)		판매/서비스직	33( 11.0)	43( 19.1)	76( 14.5)	
	기능/생산직	39( 13.0)	51( 22.7)	90( 17.1)		기능/생산직	11( 3.7)	22( 9.8)	33( 6.3)	
	소규모 자영업	48( 16.0)	51( 22.7)	99( 18.9)		소규모 자영업	31( 10.3)	56( 24.9)	87( 16.6)	
	사무직	64( 21.3)	26( 11.6)	90( 17.1)		사무직	26( 8.7)	16( 7.1)	42( 8.0)	
	일반 전문기술직	66( 22.0)	37( 16.4)	103( 19.6)		일반 전문기술직	27( 9.0)	11( 4.9)	38( 7.2)	
	고위전문직	21( 7.0)	5( 2.2)	26( 5.0)		고위전문직	6( 2.0)	5( 2.2)	11( 2.1)	
	기 타	19( 6.3)	5( 2.2)	24( 4.6)		기 타	9( 3.0)	5( 2.2)	14( 2.7)	
	계		300(100.0)	225(100.0)		525(100.0)	계		300(100.0)	225(100.0)

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I 은 미술전시회 관람, 전통 문화제, 명승지 방문 등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 문항들은 가족여가활동을 함에 있어서 계획적·의도적이고 상호공유적이며, 여가활동 자체보다는 학습에 대한 동기가 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육적 가족여가활동 영역(11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II 는 영화관람, 사진촬영, 수집활동 등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 문항들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 자기개발이나 자아실현욕구의 성격이 크며 여가활동 자체에 몰입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취미적 가족여가활동 영역(10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III 은 탁구, 볼링, 스포츠경기 관람 등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 문항들은 사회성을 요하면서 신체적 활동을 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요하는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체적 가족여가활동 영역(9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IV 는 외식, TV 시청 등의 문항들과 같이 특별한 계획이나 제약이 적으면서 다소 쉽게 참여할 수 있거나 고향방문 등과 같이 여가활동 자체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그 자체에 대한 동기가 큰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정적 가족여가활동 영역(13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각 요인별로 교육적 가족여가활동 영역이 .84, 취미적 가족여가활동 영역이 .79, 신체적 가족여가활동 영역이 .83, 가정적 가족여가활동 영역이 .84이다.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분류는 교육적, 취미적, 신체적, 가정적 가족여가활동 영역 점수의 Z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이 4개의 하위 가족여가활동 영역 중 Z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을 청소년의 가족여가활동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가족여가활동 유형을 교육지향적, 취미지향적, 신체활동적,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 2) 가족건강성 척도

가족건강성 척도는 총 68문항으로 구성된 유영주(200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본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들 문항 중 요인부하량이 .35이하로 나타난 2문항을 제외시키고 총 66문항을 가족건강성 척도로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각 요인의 문항을 검토하고 유영주(2004)의 연구에서의 요인명을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요인 I 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기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며, 문제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능력, 가족원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역할분담의 공평성과 일에 대한 책임감을 알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리적 건강성(23문항)으로, 요인 II 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정도의 수입을 유지하며 미래에 경제적 지출에 대한 대비를 하는 가정경제관리의 효율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안정성(5문항)으로, 요인 III 은 가족원간 서로 유대가 강하고 가족활동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가족원간 서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자율성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족유대감(25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IV 는 가족원간에 명확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반영적 경청이 이루어지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사소통력(6문항)으로, 요인 V 는 지역사회와 유대가 돈독하며, 이웃과의 유대관계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국제사회 환경에 대한 관심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유대감(7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각 요인별로 관리적 건강성 요인이 .95, 경제적 안정성 요인이 .88, 가족유대감 요인이 .95, 의사소통력 요인이 .88, 사회적 유대감 요인이 .84이다.

##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WIN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빈도와 백분율, 각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MANOV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다변량분산분석)를 실시하였으며, 집단간의 개별비교는 Scheffé의 사후검증법을 적용하였다.

## IV. 결과 분석

### 1. 부모의 주 5일 근무 여부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부모의 주 5일 근무 여부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주 5일 근무 여부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은 통계적으로 ( $F=3.439, p<.01$ )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모의 주 5일 근무 여부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하위변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주 5일 근무 여부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하위변인 중 경제적 안정성, 가족



<표 2> 부모의 주 5일 근무 여부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Effect	Wilks	Apporox.F	Hypoth.DF	Error DF	p
주 5일 근무 여부	.968	3.439	5.000	519.000	0.005

<표 3> 부모의 주 5일 근무 여부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하위변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 결과 (N=525)

주 5일 근무여부(N)	가족건강성	관리적건강성 M(SD)	경제적안정성 M(SD)	가족유대감 M(SD)	의사소통력 M(SD)	사회적유대감 M(SD)
실 시(300)		3.40(.68)	3.58(.81)	3.66(.68)	3.38(.81)	3.02(.79)
비 실시(225)		3.30(.67)	3.35(.78)	3.51(.70)	3.18(.83)	2.87(.78)
F값		2.946	10.599***	6.484*	7.532**	4.129*

\*p<.05, \*\*p<.01, \*\*\*p<.001

유대감, 의사소통력,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가족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경제적 안정성, 가족유대감, 의사소통력,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의 가족 건강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는 가정은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 가정에 비해 시간적·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상대적으로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는 곳은 공무원, 100인 이상 사업장, 전문직 등이므로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고 직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여가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을 것이며, 가족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가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가족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모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이며, 부모의 직업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전문직에 종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가족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월평균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가족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여유가 비실시 가족에 비해 가족여가활동을 계획하고 즐길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어 실제 가족여가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대상자들의 가족여가활동 특성에 대한 <부표 1>을 통해 볼 때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는 가족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평균 여가활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가족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가족여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가족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가족과 함께 가족여가활동을 계획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족간의 대화가 증가하고 가족여가활동을 함께 하면서 평소에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접하면서 가족간의 신뢰와 애정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가족유대감과 의사소통력의 가족건강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가족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이며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미래의 가계 지출에 대해 보다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며, 주 5일 근무로 증가된 자유재량 시간으로 인해 사회전반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여러가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유대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모의 주 5일 근무 여부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관리적 건강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관리적 건강성은 문제해결능력이나 올바른 가치관 확립, 가정에서의 역할 충실과 관련된 관리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관리적 건강성은 단기간의 어떠한 활동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분위기나 부모의 훈육방식의 영향을 받아 장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직업이 관리직 및 전문직인 경우 그리고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가족이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며(이민아, 2006),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 가족여가활동을 통한 생활만족도가 높다는(김미정, 2006) 연구결과들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전문·관리직에 종사할수록 가족적응성이 높고(김진희, 1989) 가족응집성이 높다는(이금, 1993) 연구, 부모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응집성이 높다는 이금(1993)의 연구결과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2.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건강성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가족여가활동의 유형을 가족여가활동 각 영역의 참여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즉, 청소년 개인의 교육적, 취미적, 신체적, 가정적 가족여가활동 영역에서의 Z 점수를 각각 산출하였고, 청소년 한 개인이 행한 4가지 하위 가족여가활동 영역 중 Z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의 특성으로 각 청소년의 가족여가활동유형을 교육지향적, 취미지향적, 신체활동적,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으로 분류·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명명한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각 영역에서의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지향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은 다른 유형들보다 교육적 여가활동 영역을, 취미지향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은 취미적 여가활동 영역을, 신체활동적 여가활동 유형은 신체적 여가활동 영역을, 그리고 가정지향적 여가활동은 유형은 가정적 여가활동 영역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분류가 유효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에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

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여가활동 유형이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태진(2002)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하지만, 가족여가활동의 각 유형은 가족건강성의 각 하위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교육체험지향활동과 취미지향활동을 많이 할수록 전반적인 가족건강성이 더 높다는 이민아(2006)의 연구결과와 가정지향적 여가활동과 신체적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경우가 다른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보다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역동성이 강화되며 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길례(2003)의 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3.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건강성

우선 연구대상 청소년들을 가족여가활동을 하는 정도에 따라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즉, 가족여가활동 점수가 평균(2.49)보다 높은 청소년들(246명)을 가족여가활동 상집단(M=3.28, SD=.67)으로, 평균보다 낮은 청소년들(279명)을 가족여가활동 하집단(M=1.81, SD=.41)으로 분류하였다.

<표 4>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각 영역에서의 가족여가활동 참여도 정도

(N=525)

가족여가활동 유형(N)	교육적 M(SD)	취미적 M(SD)	신체적 M(SD)	가정적 M(SD)
교육지향적(123)	2.85b(1.01)	2.06a( .77)	2.21a(1.08)	4.43a(1.40)
취미지향적(102)	2.11a( .89)	2.80b(1.15)	2.26a(1.09)	4.07a(1.61)
신체활동적(150)	2.01a( .91)	1.93a( .85)	3.15b(1.62)	4.08a(1.69)
가정지향적(150)	1.85a( .64)	1.86a( .59)	1.93a( .81)	5.28b(1.05)
F값	33.811***	29.643***	28.222***	21.499***

\*\*\*p<.001

※ a, b는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Effect	Wilks	Apporox.F	Hypoth.DF	Error DF	p
가족여가활동 유형	.971	1.036	15.000	1427.611	.414

<표 6>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Effect	Wilks	Apporox.F	Hypoth.DF	Error DF	p
가족여가활동 정도	.874	14.904	5.000	519.000	.000

그다음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은 통계적으로( $F=14.904, p<.001$ )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 하위변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라 가족건강성 모든 하위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가족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관리적 건강성, 경제적 안정성, 가족유대감, 의사소통력, 사회적 유대감의 가족건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의 경우 가족간의 공유시간이 많으므로 자연스럽게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증가하여 의사소통력의 가족건강성이, 그리고 가족여가활동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족구성원간의 요구나 선호를 잘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관리적 건강성을 더 높게 지각하여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또한 가족이 함께 가족여가활동을 즐기면서 평소 알지 못했던 가족들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가족간의 애정이 두터워져서 가족유대감을, 그리고 가정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체험함으로써 가정보다 더 큰 사회에 대해 인지·학습하게 되고, 지역사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사회적 유대감 영역에서의 가족건강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들이 여가를 많이 즐길수록 가족기능이 활성화된다는 하현국(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여가활동 참여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모창배(1993), 이정연

(1997), 이후원(1993)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또한 여가활동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김정운·이누미야(2003)의 연구결과와 가족여가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가족의 결속력이 증진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도 높아진다는 홍성화(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가족여가활동의 증진은 가족구성원 개개인과 가족 전체의 가족건강성을 높임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가족여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공통된 관심사를 이끌어 내고, 서로의 요구와 선호를 이해하도록 가족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부모의 주 5일 근무 여부, 가족여가활동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1)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청소년들의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청소년들에 있어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따라서는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에서는 통계적으로( $F=8.034, p<.001$ )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가족여가활동 정도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청소년이 지

<표 7>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하위변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 결과 (N=525)

가족여가활동 정도(N)	가족건강성 M(SD)	관리적건강성 M(SD)	경제적안정성 M(SD)	가족유대감 M(SD)	의사소통력 M(SD)	사회적유대감 M(SD)
상집단(246)	3.57(.58)	3.64(.75)	3.83(.59)	3.59(.71)	3.15(.73)	
하집단(279)	3.16(.70)	3.34(.83)	3.39(.71)	3.03(.83)	2.78(.80)	
F값	50.745***	17.592***	57.162***	66.059***	29.224***	

\*\*\*p<.001

<표 8>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청소년들에서의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Effect	Wilks	Apporox.F	Hypoth.DF	Error DF	p
가족여가활동 유형(A)	.943	1.148	15.000	795.443	.308
가족여가활동 정도(B)	.878	8.034	5.000	288.000	.000
A × B	.906	1.924	15.000	795.443	.018

각하는 가족건강성에 통계적으로( $F=1.924, p<.05$ )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먼저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 하위변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 하위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관리적 건강성, 경제적 안정성, 가족유대감, 의사소통력, 사회적 유대감의 가족건강성 하위변인 모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 전체 청소년들에 있어서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 하위변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 결과와 동일하며,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가족여가활동을 더 많이 하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리고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가족여가활동 정도의 상호작용에 따른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하위변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과 Scheffé의 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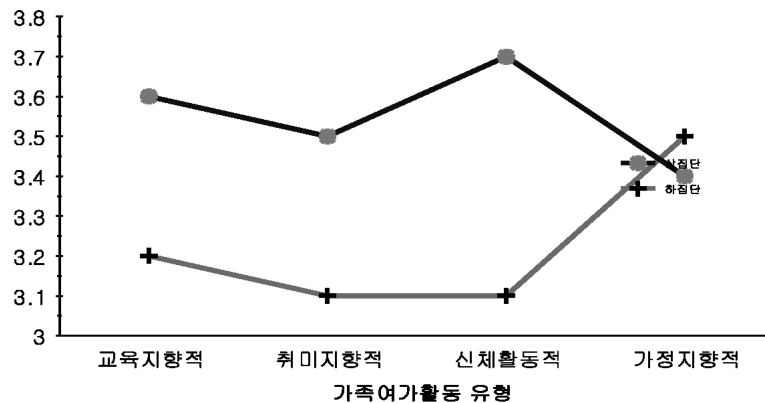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가족여가활동 정도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하위변인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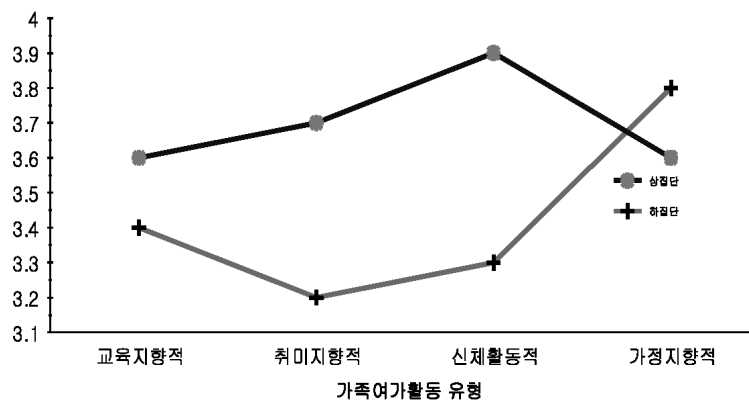
그리고 이를 가족건강성 하위 변인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교육지향적, 취미지향적, 신체활동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족여가활동 정도가 상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하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보다 관리적 건강성이 더 높으나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라 관리적 건강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가족여가활동 정도가 상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관리적 건강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다. 그러나 가족여가활동 정도가 하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정지향적 가족



<그림 1>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청소년들에서의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정도의 상호작용에 따른 관리적 건강성의 차이



<그림 2>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청소년들에서의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정도의 상호작용에 따른 경제적 안정성의 차이

<표 9>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청소년들에서의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 하위변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 결과 (N=300)

가족여가활동 정도(N)	가족건강성 관리적건강성 M(SD)	경제적안정성 M(SD)	가족유대감 M(SD)	의사소통력 M(SD)	사회적유대감 M(SD)
상집단(154)	3.58(.60)	3.70(.74)	3.87(.62)	3.62(.72)	3.20(.73)
하집단(146)	3.21(.72)	3.45(.87)	3.45(.68)	3.11(.81)	2.82(.81)
F값	22.992***	8.046**	30.667***	33.269***	14.911***

\*p<.05, \*\*p<.01, \*\*\*p<.001

<표 10>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청소년들에서의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정도의 상호작용에 따른 가족건강성 하위변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 결과 (N=300)

가족여가활동 유형(N)		가족건강성 관리적 건강성 M(SD)	경제적 안정성 M(SD)	가족유대감 M(SD)	의사소통력 M(SD)	사회적 유대감 M(SD)
상집단 (154)	교육지향적(49)	3.60 (.60)	3.61 (.73)	3.83 (.53)	3.58 (.64)	3.21 (.69)
	취미지향적(31)	3.54 (.69)	3.65 (.82)	3.82 (.77)	3.52 (.79)	3.21 (.86)
	신체활동적(44)	3.68 (.58)	3.92 (.66)	4.05 (.62)	3.84 (.78)	3.39 (.69)
	가정지향적(30)	3.43 (.50)	3.58 (.74)	3.73 (.52)	3.50 (.67)	2.90 (.61)
F값		1.145	1.883	1.903	1.842	2.791
하집단 (146)	교육지향적(31)	3.16ab(.61)	3.38 <sup>ab</sup> (.75)	3.49 <sup>ab</sup> (.52)	2.98 <sup>a</sup> (.72)	2.81 <sup>ab</sup> (.75)
	취미지향적(30)	3.08a (.69)	3.21 <sup>a</sup> (.76)	3.31 <sup>a</sup> (.62)	3.00 <sup>a</sup> (.75)	3.03 <sup>b</sup> (.66)
	신체활동적(41)	3.07a (.78)	3.34 <sup>a</sup> (.94)	3.25 <sup>a</sup> (.84)	2.97 <sup>a</sup> (.88)	2.55 <sup>a</sup> (.83)
	가정지향적(44)	3.46b (.72)	3.77 <sup>b</sup> (.89)	3.70 <sup>b</sup> (.59)	3.42 <sup>b</sup> (.79)	2.94 <sup>ab</sup> (.87)
F값		3.402*	3.353*	4.860**	3.446*	4.812**

\*p<.05, \*\*p<.01, \*\*\*p<.001

※ a, b는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이 취미지향적, 신체활동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보다 관리적 건강성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지향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안정성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취미지향적, 신체활동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족여가활동 정도가 상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하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보다 경제적 안정성이 더 높으나 교육지향적,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라 경제적 안정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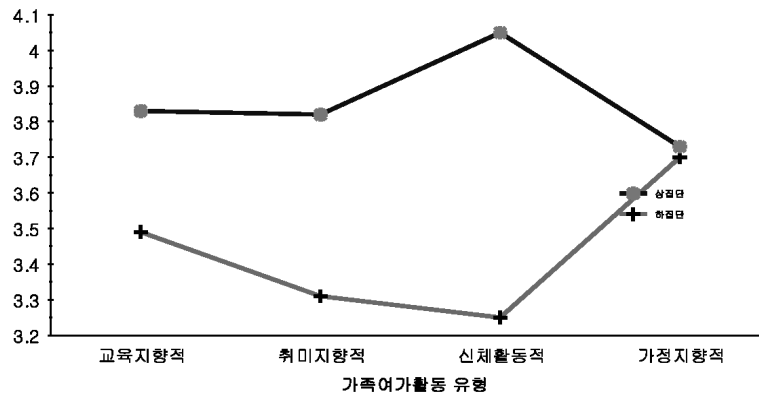
또한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가족여가활동 정도가 상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경제적 안정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여가활동 정도가 하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이 취미지향적, 신체활동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보다 경제적 안정성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지향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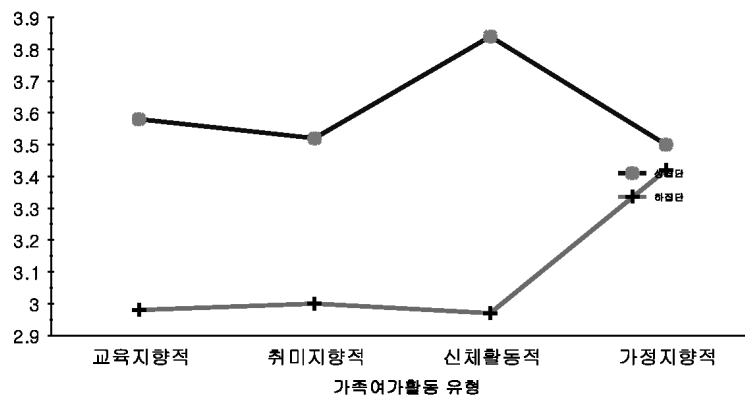
가족유대감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교육지향적, 취미지향적, 신체활동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족여가활동 정도가 상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하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보다 가족유대감이 더 높으나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라 가족유대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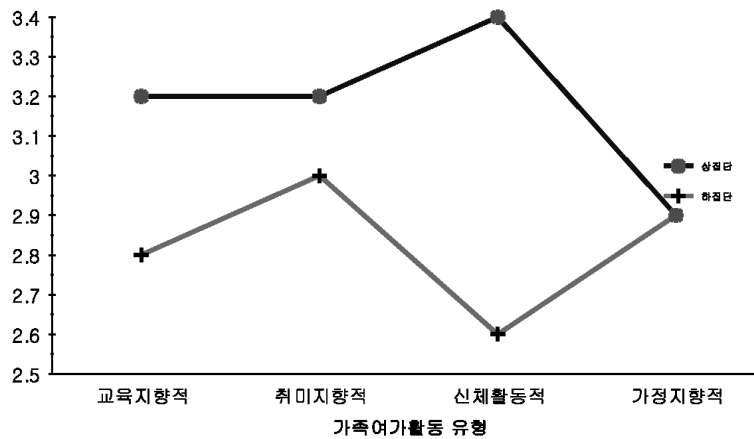
또한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가족여가활동 정도가 상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가족유대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여가활동 정도가 하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정지향적



<그림 3>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청소년들에서의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정도의 상호작용에 따른 가족유대감의 차이



<그림 4>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청소년들에서의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정도의 상호작용에 따른 의사소통력의 차이



<그림 5>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청소년들에서의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정도의 상호작용에 따른 사회적 유대감의 차이

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이 취미지향적, 신체활동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보다 가족 유대감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지향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력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교육지향적, 취미지향적, 신체활동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족여가활동 정도가 상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하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보다 의사소통력이 더 높으나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라 의사소통력에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자신의 가정의 가족여가활동 정도가 상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가족여가활동 정도가 하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이 교육지향적, 취미지향적, 신체활동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보다 의사소통력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가족여가활동 정도가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유대감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이들과는 상이한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교육지향적, 신체활동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족여가활동 정도가 상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하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보다 사회적 유대감이 더 높으나 취미지향적,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라 사회적 유대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자신의 가정의 가족여가활동 정도가 상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사회적 유대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가족여가활동 정도가 하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취미지향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이 신체활동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보다 사회적 유대감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지향적,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가족여가활동의 유형에 따라 가족건강성 각 하위변인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모든 가족여가활동에의 참여도가 높다는 이태진(2001)의 연구결과로 보아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며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은 모든 유형의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즐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비교적 다양한 가족여가활동을 접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가족여가활동을 적게 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이 취미지향적과 신체활동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보다 관리적 건강성, 경제적 안정성, 가족유대감, 의사소통력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유대감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적은 비용으

로 비교적 쉽게, 그리고 주로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활동들로 상대적으로 덜 계획적이고 충동적이며 비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여가활동은 가족에게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쉽게, 빈번히 제공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정기적으로, 그리고 익숙한 환경에서 행해지며 단지 재미만을 위한 활동으로 간주되어 가족원들이 덜 위협적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가족원들에게 위로와 보상, 그리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취미지향적 가족여가활동과 신체활동적 가족여가활동은 덜 일상적이고 자주 일어나지 않는 활동이며 비교적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시간이나 노력, 비용면에서 비교적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하며 가정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취미지향적 가족여가활동과 신체활동적 가족여가활동은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에 비해 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활동들로써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 일상적 활동인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에 비해 가족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경험에 대한 적응과 타협을 더 요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취미지향적 가족여가활동과 신체활동적 가족여가활동은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에 비해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지만 활동 자체에 더 몰두하게 되어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보다 가족건강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

가족과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자주 가족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할 때에 부모·자녀 간에 이해와 신뢰가 싹트고 정서적 유대가 긴밀해져 가족건강성이 증진됨으로써 서로간의 친밀감과 자율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게 됨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가정지향적 여가활동 유형은 청소년기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소한 여가활동들도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청소년기 가정은 다분히 수동적인 여가활동이지만 가정에서 행할 수 있는 공통적인 즐거운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여가를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가족여가활동을 적게 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취미지향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은 신체활동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보다 사회적 유대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미지향적 가족여가활동은 신체활동적 가족여가활동에 비해 비교적 활동 자체를 위한 계획이나 가족여가활동을 즐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여, 이러한 가족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주로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배드민턴, 축구, 배구 등의 신체활동적 가족여가활동의 경우에는 영화관람, 연예공연관람 등의 취미지향적 가족여가활동에 비해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특별한 장소나 도구의 제약을 적게 받으므로 계획이나 시간적·경제적 투자가 적

<표 11>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서의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에 대한 다변량분산 분석 결과

Effect	Wilks	Apporox.F	Hypoth.DF	Error DF	p
가족여가활동 유형(A)	.929	1.055	15.000	645.000	.397
가족여가활동 정도(B)	.878	5.922	5.000	213.000	.000
A × B	.910	1.363	15.000	588.401	.160

<표 12>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서의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 하위변인에 대한 단변량 분산분석 결과 (N=225)

가족여가 활동 정도(N)	가족건강성 M(SD)	관리적건강성 M(SD)	경제적안정성 M(SD)	가족유대감 M(SD)	의사소통력 M(SD)	사회적유대감 M(SD)
상집단 (92)	3.56(.55)	3.53(.74)	3.76(.56)	3.52(.70)	3.06(.73)	
하집단(133)	3.12(.68)	3.23(.78)	3.33(.73)	2.94(.84)	2.74(.79)	
F값	26.192***	8.495**	20.123***	25.878***	8.260***	

\*p<.05, \*\*p<.01, \*\*\*p<.001

어도 가능한 활동들이 많다. 따라서 취미지향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은 영화나 각종 공연관람 등과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타인들과 접촉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어 신체활동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보다 사회적 유대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과 적게 하는 청소년들 간에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은 다른 여가활동 유형에 비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쉽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활동들로 익숙한 환경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여가활동이라는 인식보다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가족여가활동을 통한 가족 간의 질적인 교류도 다른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과 적게 하는 청소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라 각 가족의 가족건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여가활동 유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족여가활동을 다른 가정에 비해 많이 하는 가정에서는 교육지향적, 취미지향적, 신체활동적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가족건강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반면, 가족여가활동을 적게 하는 가정에서는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가족건강성을 더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가족의 여가활동 유형과 그들이 행하는 여가활동 정도에 따라 가족건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족여가활동을 선

택해야 할 것이다.

2)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있어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있어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있어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라 가족건강성은 통계적으로(F=5.922, p<.001)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가족건강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 하위변인에 대한 단변량분산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 청소년에 있어서 가족여가활동 정도에 따라 가족건강성 하위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도 가족여가활동 정도가 상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가족여가활동 정도가 하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관리적 건강성, 경제적 안정성, 가족유대감, 의사소통력, 사회적 유대감의 가족건강성을 모두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가족여가활동 유형과 가족여가활동 정도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이 지각



하는 가족건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지만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특별한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의 가족건강성을 더 높게 지각하며 한정된 주말시간 안에서도 가족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가운데 가족원간의 대화가 증가하고 가족여가를 통한 가족원간의 이해와 관심으로 가족건강성이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가족일수록 가족건강성이 높다는 김현주 등(200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비록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아 시간적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상황이라도 가족원 모두가 가능한 한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또 만족스러운 가족여가활동을 위해 가족구성원간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가족여가활동을 개발하고, 이와 더불어 가족구성원간의 충분한 대화와 관심을 통하여 가족원이 느끼는 가족여가활동의 장애요인을 고려한다면 가족건강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얻어진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가족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경제적 안정성, 가족유대감, 의사소통력,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 영역의 가족건강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주 5일 근무제와 주 5일 수업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 5일 근무를 하는 가족들은 늘어난 여가시간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함께 여가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가족여가활동들을 개발하여 함께 함으로써 가족건강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고, 그러한 기회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부모가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가정들은 가족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청소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함께 하는 시간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 인해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가정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질 높은 가족여가활동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적게 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관리적 건강성, 경제적 안정성, 가족유대감, 의사소

통력, 사회적 유대감의 가족건강성 모든 영역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떤 가족여가활동을 하는가보다는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가족구성원들의 가족건강성을 향상시키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함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공통된 관심사를 이끌어 내고, 서로의 요구와 선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족구성원 모두가 노력함으로써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가족여가활동을 더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관리적 건강성, 경제적 안정성, 가족유대감, 의사소통력, 사회적 유대감의 가족건강성이 더 높았다.

또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가족여가활동을 적게 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이 취미지향적과 신체활동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보다 관리적 건강성, 경제적 안정성, 가족유대감, 의사소통력의 건강성이 더 높았다. 또한 취미지향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이 신체활동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보다 사회적 유대감의 건강성이 더 높았다.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교육지향적, 취미지향적, 신체활동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적게 하는 청소년들보다 관리적 건강성, 경제적 안정성, 가족유대감, 의사소통력, 사회적 유대감의 가족건강성을 더 높게 지각하였으나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 유형의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가족여가활동의 정도에 따라 가족건강성 하위영역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가족여가활동을 다른 가정에 비해 많이 하는 가정에서는 교육지향적, 취미지향적, 신체활동적 가족여가활동을 다른 가족여가활동보다 많이 하는 것이 가족건강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반면, 가족여가활동을 적게 하는 가정에서는 가정지향적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가족건강성을 더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가족의 여가활동 정도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가족여가활동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가족 상황에 적합한 가족여가활동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으며,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적게 하는 청소년들보다 관리적 건강성, 경제적 안정성, 가족유대감, 의사소통력, 사회적 유대감의 가족건강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아 비록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아 시간적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족원 모두가 가능한 한 가족여가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또 만족스러운 가족여가활동을 위해 가족구성원들 서로가 노력한다면

가족건강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자원이 부족한 가정의 가족여가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적 도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볼 때 가족여가활동은 그 가족의 여러 생활 조건과 환경에 따라 많이 좌우되지만, 부모 및 자녀의 주 5일 근무 및 수업으로 가족여가활동이 증가한다면 가족간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가족건강성이 더 높아진다고 하겠다. 특히 가족이 어떠한 활동을 함께 하느냐 하는 가족여가활동 유형보다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가족여가활동을 즐기는 정도가 가족건강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교육이 가정에서는 가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가족여가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어야 하겠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구성원들의 여가수요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다양한 성별, 계층별, 지역별, 학력별 요구들로 특화시키고,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점차적으로 확대·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 및 주 5일 수업제의 안정적인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한국인의 여가수요와 패턴, 여가에 거는 기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소외되는 계층을 위해 여가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 및 개인의 실정에 맞는 여가프로그램 개발과 운용하게 하고 여가시설도 확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른 가족상황과 가족구성원들의 역할이나 지위는 가족여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한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곽태홍(2003).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활동 변화: 대전시 금융회사 직원들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관광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2006). **청소년의 가족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창원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조(1990). 여가활동을 통한 건전생활의 실천방안. **사대논문 21(90.12)**, 1-16.
- 김영숙(2002). **여가활동 유형이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외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운 · 이누미야(2003). 여가생활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여가학연구**, 1(1), 41-56.
- 김정운 · 최석호 · 이장주(2004). 주 5일제와 여가정책. 제1회 **한국여가문화학회 콜로키움 자료집**(www.lculture.net).
- 김현주 · 이창현 · 박소라(2002).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장인들의 주말 여가 문화 이용 행태 변화: 설문 조사를 통한 실시 집단과 비실시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생활 문화의 변화. 제 1회 **여가문화학회 포럼 자료집**, 24-37.
- 김혜현(2002). **대학기숙사생들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계약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춘(2005). **학교 주 5일제 수업 운영에 대한 학생 · 학부모 · 교사의 요구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영수(2007). **주 5일 근무제가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모창배(1993). **여가활동 참여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숙재 · 윤소영 · 차경옥 · 천혜정(2005). **여가문화와 가족**. 서울: 신정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2001). **주 5일 근무 실시에 전제 조건**. CEO Information. 서울: (<http://seriecon.seri.org/>).
- 삼성경제연구소(2003). **주 5일제 근무와 소득과 여가에 대한 인식 (2001년 3/4분기 소비자태도 부가조사)**.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손나래(2005).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가계의 여가 및 여가비 지출 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강영(1999). **가정주부의 여가활동 참여와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인준(2002). **주 5일 수업제가 남자중학생의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성인(2002). **주 5일 근무제가 도시근로자들의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영아(1997). **중산층의 가족여가활동 실태와 요구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윤소영(2002).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 실시 집단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국여가문화학회 제1회 여가문화 포럼 자료집**, 1-12.
- 이기영 · 김외숙 · 구혜령(1995). 부부의 공유 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3), 113-126.
- 이만형(2002).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청소년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민아(2006). **청소년의 가족여가활동과 가족건강성 연구: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승호(2005). **중학교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의 인식 비교**. 동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영훈(2002). **근로시간 단축이 여가생활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현(2002).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주부의 여가생활 및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연(1997). **여가활동이 여가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태진(2002). **가족여가활동이 가족체계역동성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후원(1993). **여가활동참여유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연구: 서울시내 주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지영숙·이태진(2001). 도시 가정의 가족여가 유형: 자녀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53-165.

최균호(2003). 더 적게 일하면 불행해지는가. **한국여가문화학회. 연차학술발표논문집**, 105-116.

최길례(2003). 가족의 여가활동이 정서적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2(3), 175-184.

최소영(2004). **가족여가 참여 정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숙경(2005).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윤형(2003). **주 5일 근무제가 직장인의 여가활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혜(2004).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69-83.

통계청(2006). **2006 국민여가조사**. 서울: 통계청.

하헌국(1995). 가족여가지향성이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18(2), 105-124.

홍성화(2003). 가족단위 여가활동 참여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주 5일 근무제 실시집단을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2), 57-72.

Orthner, D. K. & Mancini, J. A. (1990). Leisure impacts on family interaction and cohes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138-149.

Olson, D. H. (1986). Circumplex Model VII: Validation studies and FACES II. *Family Process*, 25, 337-351.

Ragheb, M. G. & Griffith, C. A. (1982).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of older pers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4), 295-306.

Robertson, B. J. (1999). Leisure and family: perspectives of male adolescents who engage in delinquent activity

as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1(4), 335-358.

- 접수일 : 2008년 05월 15일
- 심사일 : 2008년 06월 05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12월 24일

&lt;부표 1&gt; 부모의 주 5일 근무제 실시 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여가관련 특성

변 수	범 주	주 5일 근무제 실시 가족		전 체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주 5일 근무제 실시 후 여가비 지출	증가하였다	123( 41.0)	66( 29.4)	189( 36.0)
	변동이 없다	162( 54.0)	144( 64.0)	306( 58.3)
	감소하였다	15( 5.0)	15( 6.6)	30( 5.7)
평균 여가활동 시간	하지 않는다	29( 9.7)	40( 17.8)	69( 13.1)
	2시간 미만	55( 18.3)	49( 21.8)	104( 19.8)
	2시간 이상~5시간 미만	111( 37.0)	76( 33.8)	187( 35.6)
	5시간 이상~7시간 미만	41( 13.7)	25( 11.1)	66( 12.6)
	7시간 이상~9시간 미만	13( 4.3)	12( 5.3)	25( 4.8)
	9시간 이상~11시간 미만	20( 6.7)	10( 4.4)	30( 5.7)
	11시간 이상~13시간 미만	7( 2.3)	4( 1.8)	11( 2.1)
	13시간 이상	24( 8.0)	9( 4.0)	33( 6.3)
여가계획 여부	대부분 계획	29( 9.7)	15( 6.6)	44( 8.3)
	반 정도 계획	78( 26.0)	42( 18.7)	120( 22.9)
	그때그때 정함	193( 64.3)	168( 74.7)	361( 68.8)
가족여가활동 미실시 이유	비용의 부담	30( 10.0)	23( 10.2)	53( 10.0)
	가족원이 바빠서	120( 40.0)	132( 58.7)	252( 48.0)
	정보의 부족	16( 5.3)	8( 3.6)	24( 4.6)
	게을러서	64( 21.3)	25( 11.1)	89( 17.0)
	장소가 없어서	39( 13.0)	15( 6.7)	54( 10.3)
	시간낭비라고 생각	6( 2.0)	8( 3.5)	14( 2.7)
	기 타	25( 8.4)	14( 6.2)	39( 7.4)
여가의 목적	가족원의 능력개발	9( 3.0)	1( 0.4)	10( 1.9)
	가족원의 건강	15( 5.0)	16( 7.1)	31( 5.9)
	가족원의 즐거움	105( 35.0)	82( 36.5)	187( 35.6)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습득	10( 3.3)	9( 4.0)	9( 3.6)
	가족원의 스트레스 해소	38( 12.7)	30( 13.3)	68( 13.0)
	가정의 화목	107( 35.7)	76( 33.8)	183( 34.9)
	기 타	16( 5.3)	11( 4.9)	27( 5.1)
가족여가활동의 영향	긍정적 영향	245( 81.7)	177( 78.7)	422( 80.4)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	50( 16.7)	45( 20.0)	95( 18.1)
	부정적인 영향	5( 1.6)	3( 1.3)	8( 1.5)
가족여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그렇다	262( 87.3)	180( 80.0)	442( 84.2)
	그렇지 않다	38( 12.7)	45( 20.0)	83( 15.8)
계		300(100.0)	225(100.0)	525(100.0)